

# “참선으로 맑은 심성 키워요”

## 하동 청소년수련원 개원...쌍계사 운영 2만평에 정신교육관·아영장등 갖춰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남 하동에 청소년들이 대자연과 대화하며 참선을 통해 맑은 심성을 키울 수 있는 초대형 포교·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수련회와 참선·명상 수련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경남 지역 청소년 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하동청소년수련원(원장 묘유스님)은 11일 2만여평의 부지 위에 정신교육관(강의실), 생활관, 운동장, 아영장 등 10여개의 부대시설을 새롭게 단장, 개원법회 및 평화통일기원 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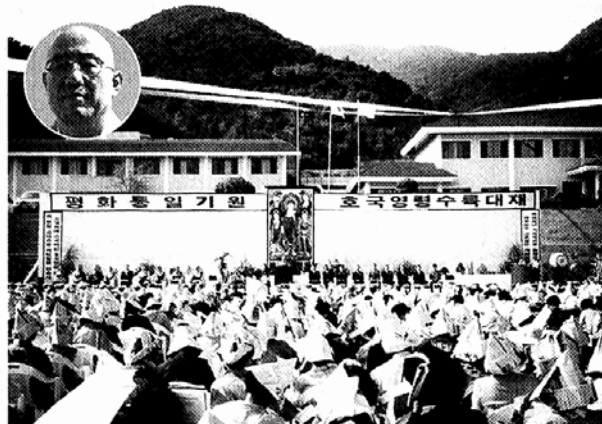
이번에 개원한 이 수련원은 경남 지역에 있는 7개의 민간 위탁 청소년 수련 시설중 최대 규모로서 지역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일한 수련

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94년부터 하동군이 건립 운영해 오던 이 수련원이 불교계에 위탁된 것은 지난 7월. 경영 관리에 대한 부담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느낀 하동군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한 것을 이 지방 교구본사인 쌍계사 분발사주지연합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위시설과 아영장, 운동 및 놀이기구 시설 확충 등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 건물인 정신교육관에 전시실, 강당, 분임토의실 등



△개원법회와 함께 열린 평화통일 기원법회에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을 비롯해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대 뒤 수련원의 정신교육관과 생활관이 보인다. 원내는 묘유스님.

을 갖추고 명사 초청 강의 및 법회, 세미나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신 교육관과 나란히 위치

수용할 수 있는 아영장까지 합치면 동시에 1천2백여명이 심신 수련을 할 수 있는 매머드급 수련시설이다.

이런 대규모 시설의 장점을 살려 대입학력고사가 끝나는 12월에는 하동지역 고3 수험생 200여명을 초청해 탈선 예방과 맑은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참선 명상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새해맞이 일출법회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인 이 수련원은 경남 지역의 재가 불자 교육을 위한 불교교양 대학도 열고 있다. 실제로 쌍계사 분발사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금오불교 교양대학’을 9월 18일부터 열어 현재 2백여명의 불자들이 불교 기초 교리를 비롯해 참선, 천수경 독송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신학을 익히고 있다.

하동 청소년수련원장 묘유스님은 “특정 종교에 치우침 없이 모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수련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최대한의 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김주일 기자 (jjkim@buddhopia.com)

### 종단소식

#### 조계종

##### 대장경 수호 만등불사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보광)는 11~12일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팔만대장경이 고려말 강화도에서 관각대 조선조 태조때 옮겨온 지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 1만개의 연꽃등에 불을 켜는 만등법회, 보살계 법문, 영가천도 대령관육 등이 열렸다. 또 12일에는 영가사식, 계불봉안, 수계식, 화향법회 등 행사들이 이어졌다.

#### 진각종

##### 스승강공·추념불사

진기 54년 추기 스승강공이 18~19일 양일간 서울 총인원에서 각해 총인 등 종단 산하 스승과 종립학교 정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공에 이어 19일 오후 3시 총인원 대강당에서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하며 오후 4시 30분부터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2회 정기총의회가 개최됐다.

#### 태고종

##### 대각각사 탄신기념대례

대각각사 탄신 946주년 기념대례요식이 25일 오전 11시 태고종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된다. 범종 타종으로 시작되는 대례식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원로 종진스님들과 지허 중앙선원장, 선암사 대종스님 및 24기 합동독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등 1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각각사 진영과 국사가 수했던 금란가사도 일반에 공개된다.

#### 관음종

##### 신곡맞이 전국순회 법회

2000년 신곡맞이 4중보은(四重報恩)을 위한 전국순회법회가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용승사 흥법사 만덕사 백운사 등 전국 15개 사찰에서 열린다. 이번 순회법회에는 흥과 총무원장 등 종단 간부스님들이 동참한다.

#### 여래종

##### 창종 13주년 기념법회

창종 13주년 및 대승불교정법일 33주년과 흥본산 금강 대약사사 창건 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17일 정오 충북 옥천군 동이면 대약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대약사사 관내 관음암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도 함께 열린다.

(043)731-2261

#### 화엄종

##### ‘화엄종 성전’ 복간 봉정식

창종 34주년을 맞아 창종주능해 월승 스님이 33년전 집필해 발간했던 《화엄종 성전》을 새롭게 단장해 복간,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약사사(주지 화웅)에서 봉정식을 갖는다.

(032)422-2066

#### 전태종

##### 관문사 통일기원 법회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8일 4층 옥보전에서 낙성 2주년 기념 민족화합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전두환 전 대통령,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근대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의원,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내외 귀

## 경주 남산 불교유적 새단장

### 폐사지등 13곳 발굴...사적지도 정비

신라시대의 각종 불교문화재가 산재한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이 새롭게 단장된다.

경주시는 최근 남산에 산재해 있는 폐탑, 불상, 사지(寺址) 등을 발굴, 복원하고 사적지 주변을 정비해 불교성지다운 원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남산 일원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주시는 국비 등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지 3개소의 토지를 매

입하고 폐탑, 폐사지 13개소를 발굴하며 산사태와 산불피해 지역 70ha를 복구하고 문화재 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번에 발굴되는 사지는 △천관사지 2,727평 △인용사지 2,871평 △양조암굴 제3사지 1,270평 등 모두 3개 사지, 6,868평에 이른다. 또 국사굴 제1절터 삼층석탑을 비롯 △큰지비위굴 제4절터 삼층석탑 △별천용굴 삼층석탑 △속드름굴 삼층석탑 등 모두 13개소의 폐탑이 발굴, 복원된다.

사적 제31호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일대 25.6ha에 이르는 남산은 보물 13점, 사적 12개소 등 모두 418점의 성보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신라의 역사와 전설의 보고다. 하지만 남산은 그동안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입산과 탁본 등으로 상당수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남미륵사 영산대제

전남 강진 남미륵사(주지 범홍)는 6일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및 선망부군초도를 위한 영산대제(사진)를 봉행했다.

주홍직 광주지사장

### 10월의 독립운동가

#### 제주 방동화스님

제주보훈지청은 ‘10월의 독립운동가’로 1918년 일어난 무오년 중문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한 방동화(1887-1970) 스님을 선정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전인 1918년 10월5~6일 법정사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봉기한 법정사 항쟁은 그 해 6월쯤 경북 영일출신의 법정사 주지 김연일 스님과 경주 기림사에서 독도한 방동화 스님 등 3인이 제주도 산천에서 형제의 결의하면서 비롯됐다.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투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제주항일항쟁의 시발점이 된 이 거사로 방동화 스님은 같은 해 11월6일 체포됐으며 이 항쟁으로 모두 66명이 목포감사지국으로 송도됐고 옥사 5명, 징역형 31명, 발금형 15명, 불기소처분 18명 등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정부는 1995년 광복절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김재경 기자

## 실상사 생태마을 생긴다

### 농장·수련원등 지어 친환경농업 교육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지향하는 친환경농업교육장 기공식을 거행했다.

실상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 구성된 생태산촌마을은 3,750평의 교육장부지와 3만평의 실상사농장(제1실습장), 4만평의 제2실습장에 법인출자금 4억원, 중·소농 고품질사업비 2억5천만원, 교육장 정비용 3억(자부담 20%) 등 총 9억5천만원을 들여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지역드레마

올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올해 안에 강의장과 숙소, 생태화장실을 건립하고 2001년에 환경농업학교·농업컨설팅센터·농산물가공실·그린음악실습장·황도방·도자기공예실·명상수련원, 2004년 환경농업전문대학·전직사육장·주민복지관·자연휴양촌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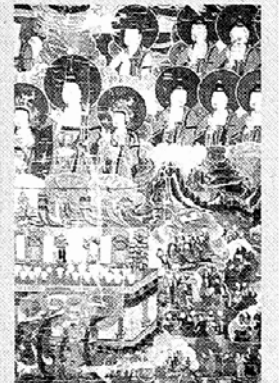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 분황사 원호예술제 성황

제5회 원호예술제가 9일 스님이 주로 주석했던 분황사에서 열렸다.

분황사(주지 종수)와 원호학원(주원 이사장 성타·불국사 주지) 주최로 열린 이날 예술제는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부 분황의식에 이어 2시간30여분동안 모전 석탈엽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장엄하게 펼쳐졌다.

김재경 기자



### 청룡사 감로탱 보물지정

경기 안성 청룡사 감로탱이 보물 제1320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13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감로탱은 가로 239.9x세로 200.0cm, 1폭 그림으로 조선 숙종 18년(1692) 작품이다.

화면 구성은 윗부분에 아미타삼존과 칠여래, 관음·지장보살과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넣고, 속세의 여러 장면이 표현돼 있다.

특히 불·보살의 몸에 금니(金泥)를 넣어 다른 불화와 뚜렷이 구별되고 있으며, 중간부분 산과 수목의 표현은 당시 유행하던 일반화화 화풍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래쪽 여러 풍속장면은 17세기 이후 풍속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 회화사적 의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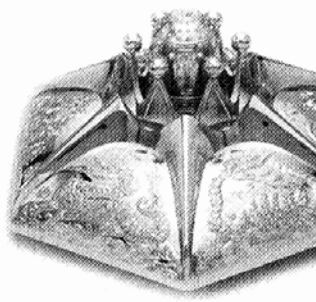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 기(氣)란 : 현실이다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 다하여 소원성취·안진은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 ◆ 육기(氣) 방 사용 제임사례 ◆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과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정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법정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 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 기(氣)의 중요성 ◆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 사용처 ◆ 가정집,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공 장: 051) 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